

# 〈논단〉 未 來 와 의 對 決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장

이 한 빈

## I

우리가未來를 생각하고 論한다는 것은 우리 社會가 現狀態대로 停滯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變動되어 가리라는 것을 豫想하는 것이며, 이러한 社會變動의 方向 또는 그 結果를 우리가 바라는 方向 또는 結果로 이끌어 볼수 없는가 하는 希望이 豫提되어 있다. 未來社會를 이와같이 우리가 希望하는 方向 또는 그 結果로 誘導해 볼수 없는가 하는 생각 속에는 “發展”에 對한 意慾이 內包되어 있다.

흔히 發展이라 하면 그 社會가 이룩한 物量的인 結果를 그 尺度로 보기 쉬우나 社會를 變動이라는 側面에서 볼때에는 이러한 變動에 對應하는 能力을 向上시켜가는 過程인 것이며 더 積極的으로는 이러한 變動을 意圖하는 方向으로 誘導해 가는 能力의 向上이다.

發展을 이와같이 變動에 對한 對應能力의 向上이라는 動態的인 過程으로 把握하면 論議의 焦點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集約된다.

첫째는 未來社會의 變動의 方向과 樣相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여기에 對應하는 能力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 II

未來社會에 있어서의 變動의 方向과 樣相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그 觀點에 따라서 各各 여러가지로 달리 볼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크게 다음 네가지 側面, 即 空間次元과 時間次元, 社會的인 流動性 및 社會的 質의 水準의 側面에서 考察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앞으로의 社會는 閉鎖的인 社會體制에서 開放된 社會體制로 轉換됨에 따라 經濟, 社會, 文化的 모든 側面에서 人的, 物的 資源의 國際的인 移動이 自由로워 지므로서 그 流動性이 增大된다. 따라서 經濟, 社會, 文化的인 모든 面에서의 競爭의 範圍가 國際的으로 擴大되어 더

욱 熾熱해 지고 適者生存의 法則이 더욱 嚴格히 適用될 것이다.

비근한 例로서 歐洲共同市場(EEC)을 들으면 모든 生産施設은 한 國家를 相對로 한것이 아니고 統合된 地域共同體 全體를 相對로 하므로서 生産施設이 大型化 되었을뿐 아니라 人的, 物的 資源의 移動이 自由로우므로서 經濟的인 生産性은 크게 向上 되었고 따라서 國際的인 競爭力은 크게 強化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統合의 效果는 비단 經濟的인데 局限되는 것이 아니고 社會, 文化的 모든 面에 크게 衝激을 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類似한 地域共同體는 中南美, 中東, 아프리카等 各地域을 風靡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韓國을 中心으로 하는 東南亞細亞에서도 그 氣運이 成熟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社會體制 轉換의 端的인 하나의 例에 不過하지만, 이러한 體制轉換은 國家單位에서 地域單位로, 더 나아가서는 全世界的인 開放體制로 轉換되어 가고 있다.

둘째 앞으로의 社會에 있어서 變動의 方向은 多樣化 되고 空間的으로 擴大될 뿐 아니라 速度 또한 過去에 有없이 빨라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變動은 科學 發展의 衝激으로 더욱 加速되고 있다.

世界的인 統計에 依하면 科學 分野에 있어서 最近 10餘年 사이에 이루어진 業績은 過去 全人類가 有史以來 이루어 놓은 業績에 匹敵할만 하다고 하며 이와같이 爆發的으로 成長하는 科學的 知識은 곧 技術的 發展의 源動力이 되고 또한 科學, 技術의 發展이 全體, 人類, 社會, 文化, 全般에 큰 衝激을 加하므로서 變動의 幅을 擴大하고 速度를 加速시킨다.

이러한 科學技術의 發展은 量的인面 外에 質的인 面에서도 拍車를 加하여 原子力의 開發, 電子計算組織(E. D. P. S)의 開發, 各種生産 施設에 의 自動化(automation)等等으로 變動의 深度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첫째 社會的 流動性을 制限하는 모든 障壁이 除去되므로써 社會的 流動性이 垂直, 水平的으로 크게 增大될 것이다.

앞에서 國際的인 流動性의 增大는 이미 指摘한바 있거니와 國內的으로 볼때에도 工業化가 促進됨에 따라서 人口의 地域的 移動이 激甚하여 農漁村에서 都市로 人口의 集中現象은 過去에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다.

'70年代 中半期에는 農村 對 都市의 人口構成化가 거의 같게 될 것이며, '80年代에는 거의 以上の 人口가 都市에 居住하게 될 것이다.

流動性의 增大는 이러한 橫的, 水平的인데에 單 局限되는 것이 아니고 從的인데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韓國社會에 있어서 傳統的으로 嚴格한 身分制約이 解放과 더불어 除去되므로써 人口의 從的 移動이 自由롭게 되었으나 더 根本的으로는 解放以後 全國民의 教育에 對한 莫大한 投資는 20餘年의 時差(time lag)를 거쳐 '60年代 以後에는 人的 資源의 垂直的 移動이 徐徐히 誘發되어 '70年代 以後에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등 모든 面에서 그 流動 速度가 몇 倍로 加速될 것으로 豫想된다.

이러한 人的 資源의 垂直, 水平的 移動은 單純한 職業構造의 變動에 머무르지 않고 社會 全般的인 質的 能力 水準을 變貌시키므로써 社會的 競爭體制를 크게 바꿔 놓게 될 것이다.

넷째 以上에서 살펴본 몇가지 主要한 社會變動의 特徵으로 말미암아 社會가 生産性을 위주로 하는 工業社會에서 “아이디어”를 위주로 하는 새로운 社會體制로 轉換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社會의 競爭은 生産性 向上的 競爭을 넘어서 “아이디어”의 競爭으로 轉換되고 “아이디어”開發에 있어서 高度의 專門性과 交互作用(cross-fertilization)의 必要性 및 이를 뒷받침하고 實現하기 위한 莫大한 物的 뒷받침의 必要性에 依하여 社會組織이 巨大組織化 하게 되는 傾向이 뚜렷해 진다.

### III

이러한 未來社會의 새로운 展開에 對應해서 發展을 갖어오기 위해서는 最少한 다음 몇가지가 그 社會體制 內部에 培養되고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는 이러한 變動에 對應하는 社會成員의 精神姿勢 乃至는 態度이다. 社會成員이 變動에 對하여 消極的이거나 現實에 執着하여 無事安逸主義에 흐른다면 그 社會는 停滯되거나 퇴역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變動狀況下에서 發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社會成員이 變動에 積極的이고 새로운 것을 追求하는 創造의 精神이 社會全般에 充溢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는 人間의 能力에 對한 새로운 認識이다.

이러한 社會에 있어서의 人間의 能力은 單純한 知識의 量이나, 機械的인 일에 熟達된 熟練技術로 評價된 것이 아니고 積極的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開發하는 創意의 能力이 重要視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發掘하려는 精神은 高度의 專門的인 分野에 從事하는 社會成員은 勿論이고 우리의 日常生活에 있어서 까지도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創造하려는 “아이디어”開發에 對한 熱意가 生活化 되므로써 만이 우리의 未來는 發展이 기약될 것이다.

셋째 社會가 “비존”이 있고 能力이 있는 多數의 管理層人力, 더 크게는 “엘리트”集團을 保有해야 한다.

積極的으로 새로운 未來를 創造하기 위해서는 우선 社會的인 方向 設定이 前提되어야 하고 이러한 方向으로 社會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社會의 “엘리트”集團이 未來에 對한 “비존”을 갖고 目標達成을 위해서 “리더쉽”을 發揮하여 社會內的 各種資源을 動員하고 이러한 目標에 關聯된 內的, 外的 支援을 獲得할 수 있는 實踐的인 能力이 要望된다.

아무리 社會成員이 變動에 對한 姿勢가 積極的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開發할 創意의 能力이 充溢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組織化 하며 社會的인 “에너지”로 轉換 시킬수 있는 社會的 “메카니즘”이 그 社會에 缺如되어 있다면 그 實效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社會에 있어서 어떤 創意의 “아이디어”는 그 生成과 具體化 過程에서 高度의 專門的 知識과 關聯 諸 分野의 交互的인 能力이 必要할뿐 아니라 莫大한 資源의 뒷받침이 過去 어느때 보다는 더욱 더 必要하기 때문이다.

換言하면 未來에 있어서 變動에 對應하며 發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未來社會 變動의 諸特徵에 비추워 보아 社會 成員의 變動에 對한 態度가 積極的이고, 創造的 能力을 保持하고 있어야 할뿐 아니라 그 社會內에 未來에 對한 “비존”을 가지고 目標을 設定하여 이를 實踐할 수 있는 有能한 “리더쉽”을 갖는 것이 最少 不可缺의 要論이다.